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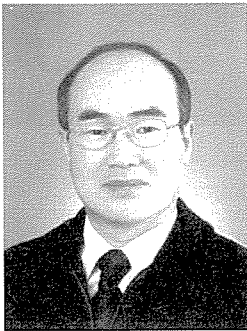
새로운 들길 · 물길 100년을 위하여!!

One Century of Irrigation and Drainage in Korea

김 현 영

Kim, Hyun Young
(hykim@ekr.or.kr)

한국관개배수위원회 부회장
한국농촌공사 농어촌연구원장



2007년이면 한국농촌공사는 1908년 옥구수리조합이 설립된 이래 100년의 역사를 자랑하게 된다. 대한민국에 공기업·민간 기업을 망라하여 100년 역사를 가진 기업은 없다. 한국농촌공사는 근대 관개배수기술을 우리 국토에 본격적으로 접목시켜 한민족(韓民族)의 삶의 터전을 일구어 왔다. 삶의 터전을 책임지며 소명을 다해 온 한국농촌공사의 역사는 대한민국의 자부심이며 다른 어느 역사보다 더 귀중하다.

옥구수리조합의 설립은 일본의 근대공학을 도입하여 우리나라의 농업 공학을 발전시키는 시발점이 되었으며, 또한 1880년대 이후 장기간의 가뭄으로 피폐해진 민생을 추스리며 식량을 증산하기 위한 초석이 되었다. 1908년 당시 옥구수리조합 등 4개의 수리조합에 인가된 면적은 4,301ha이었다(한국농지개발연구소, 2000). 2000년 현재의 수리답 면적은 약 87만ha이고 저수지는 17,700여개에 달하고 있다. 이중 한국농촌공사에서 관리하는 면적이 526천 ha이다. 지난 100년 동안 한국농촌공사는 농업기반시설의 개선을 통하여 우리민족의 주식문제를 해결하는데 선도적인 역할을 해 왔으며, 우리나라가 세계 11위의 무역대국으로 성장하는 발판을 제공하였다. 전국의 농촌을 거미줄처럼 수원공과 수로로 네트워크화 하여 가장 안정적으로 식량을 생산할 수 있는 기반을 성공적으로 조성하였다.

그러나 성공의 뒤편에는 여러 가지 공과도 있다. 적은 예산으로 물량 중심의 사업을 추진하였기 때문에 구조적으로 부실하고 충분한 안정성을 확보하지 못한 수리시설이 설치되기도 하였고, 생산성 중심으로 사업을 전개하였기 때문에 자연과 환경을 고려하지 못한 수리시설도 많이 있다. 안정성이 부족한 수리시설은 어떤 자연재해에도 대응할 수 있도록 보강되어야 하며, 자연과 환경을

고려하지 못한 수리시설은 자연과 공존할 수 있는 수리시설로 전환해야 할 시점이다.

한국농촌공사 100년의 역사와 교훈을 바탕으로 한국농촌공사와 KCID는 앞으로 100년을 위한 농업기반시설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정의하고 새로운 도전을 시작해야 한다. 과거의 실패를 거울삼아 앞으로는 작은 실패도 용납하지 않는다는 각오로 새로운 도전을 맞이해야 한다. 불확실한 미래에 대비할 수 있도록 새로운 이론과 공법을 개발하고 새롭게 전개될 수 있는 모든 경우의 수에 대한 대응능력을 키워야 한다.

앞으로 100년을 위한 들길 · 물길의 새로운 도전은 예측 가능한 미래에 대한 도전으로 시작할 수 있다. 앞으로 100년 안에 나타날 수 있는 미래 중에서 농업기반사업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3가지 미래는 다음과 같을 것이다. 첫째는 남북이 통일이 되고, 둘째는 지구온난화로 인해 한반도가 아열대성 기후로 바뀌게 되며, 그리고 셋째는 세계화로 인해 국제적인 경쟁력이 심화될 것이다.

첫째로, 남북이 통일되면 식량문제가 다시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농지와 농업기반시설의 중요성이 증대될 것이다. 또한 낙후된 북한지역의 농업기반시설 현대화를 위한 투자가 필요하게 될 것이다. 둘째로, 한반도가 아열대성 기후로 바뀌면서 강수량이 증가하여 재해발생이 많아지면 한국농촌공사에서 관리하는 저수지 등 안정성이 부족한 많은 수리시설은 더욱 재해에 취약하게 될 것이다. 셋째로, 지구촌의 세계화는 지구상의 어느 국가, 어느 시장도 국가에 의해 독점적으로 보호받을 수 없다. 이는 시장의 어떤 재화이든 국제적인 표준(global standard)을 요구하게 되어 효율성과 친환경 경성이 결여된 시설이나 이를 관리하는 조직은 생존하기 어렵게 될 것이다.

한국관개배수위원회(KCID)와 한국농촌공사는 향후 100년을 위해 이와 같은 도전을 성공적으로 개척해 나아가야 할 것이다. 우리나라의 수리시설(hardware)과 관리조직(software)을 하루 빨리 효율성과 친환경적 면에서 최고의 국제경쟁력을 가질 수 있도록 혁신적으로 개선해 나가야 할 것이다. 유명한 지체부자유자이었던 헬렌 켈러는 “사람들은 맹인으로 태어난 것 보다 더 불행한 것이 뭐냐고 나에게 물어온다. 그럴 때마다 나는 시력은 있되 비전이 없는 것” 이라고 답한다.”라고 했다. 새로운 들길 · 물길 100년을 위한 우리의 도전은 농업기반시설에 대한 새로운 패러다임을 정립하고, 실현 가능성 있는 비전을 설정하고, 한국농촌공사와 KCID가 지혜를 모을 때 성공적으로 성취될 수 있다고 믿는다. 위기는 기회라고 한다. 새로운 들길 · 물길 100년을 위한 우리의 도전으로 향후 100년을 위한 농업기반시설의 역사를 개척해 나가길 기대해 본다.